

‘점, 선, 면’...디자인으로 놀고, 조형으로 상상하다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디자인 스페이스 유니버스’展

‘점에서 시작한 우주’...놀이·디자인 어우러지는 공간 연출
장르 너머 공간과 작품의 경계 허무는 공감각적 체험의 장



진달래 & 박우혁

점, 선, 면. 디자인의 기본 조형 요소를 통해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와 조형 감각을 키워보는 놀이 활동형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 ‘디자인 스페이스 유니버스’다.

전시는 ‘점에서 시작한 우주, 점은 선이 되고 선은 면이 된다’는 조형적 흐름에서 출발해, 놀이와 디자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제시한다.

‘디자인 스페이스 유니버스’는 공간 자체

가 작업이자 작품으로 구성된다. 관람객은 전시장 안에서 건축가, 디자이너, 설계자가 돼 가볍고 말랑한 블록을 직접 옮기고 쌓으며 구조를 만든다.

고경도 스펀지로 제작된 블록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어, 전 연령층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공간에는 일종의 ‘설계 모듈’로 불리는 점정색 기초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이는 점·선·면의 확장형 구조를 반영한 형태로, 관람객은 위 아래 블록을 더하며 기존 구조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의 놀이 행위는 곧 작업이 되며, 그 자체로 작품으로 기능한다.

단순한 블록 쌓기를 넘어, 형태가 구조가 되고 구조가 다시 공간이 되는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험이다.

전시 공간은 예술공동체 진달래&박우혁이 설계했다. 이들은 그래픽, 설치, 영상, 사운드,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사회문화적 구조를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디자인 스페이스 유니버스’ 전시 전경

©Jin Dalle & Park Woohyuk 제공

구체적 서사를 배제한 강박적이면서 추상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 왔다.

관람자가 제시된 시공간을 능동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이들의 작업 태도는 이번 어린이갤러리 전시의 참여형 구성과도 맞닿아 있다.

진달래는 홍익대학교에서 조소와 디자인을 전공하고, 예술 프로젝트 ‘아카이브 안녕’을 기획한 바 있으며, 스튜디오 타임페이지 대표로 활동 중이다.

박우혁은 홍익대학교와 스위스 바젤디자인대학교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어린이갤러리 로비에서 운영되는 ‘점 점 점 디자인 놀이’는 격자형 도안 위에 점을 찍고 색을 채우며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는 활동이다. 전시 주제를 놀이처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돼, 아이들의 흥미와 이해를 동시에 이끌어낸다.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은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마련된 이번 전시는 공간과 작품의 경계를 허무는 공감각적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디자인의 미니멀한 감성과 어린이의 창의력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전시 연계 체험 색칠 ‘점 점 점 디자인 놀이’

©Jin Dalle & Park Woohyuk 제공

영산강 물길 따라 흐르는 ‘아리랑’

김윤숙 개인전 ‘아리랑-물처럼 바람처럼’...27일까지 영산강문화관

‘남도의 풍경을 배경으로 아리랑 감성과 시대의 숨결을 담다.’

김윤숙 작가의 네 번째 개인전 ‘아리랑-물처럼 바람처럼’이 오는 27일까지 영산강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작가는 그동안 ‘아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지와 회화로 한국의 미와 정서, 민족의 삶을 표현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담양 용소골에서 시작해 목포 바다로 흘러드는 영산강 물길을 따라 남도의 자연과 삶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담아낸 신작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지와 회화를 중심으로 한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물처럼 바람처럼’이라는 부제는 흐르듯 잔잔하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아리랑의 정서를 강조한다.

대표작 ‘아리랑-물처럼 바람처럼’은 담양의 추월산, 광주의 무등산, 목포의 유달산 등이 병풍처럼 영산강을 감싸며 흐르는 남도의 정취를 화폭에 담았다. 석관정과 식영정의 낭만, 대나무밭과 갈대밭을 거쳐 바다로 이어지는 물길은 작가 특유의 붓질과 색채로 재현된다.

또 다른 작품 ‘아리랑-희망의 빛으로’는 태극의 색채와 함께 무등산의 위엄을 담아 시대의 아픔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광주의 정신을 표현했다. ‘아! 대한민국(사계)’는 한반도를 사계절 풍경화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정선의 진경산수화처럼 지도 자체를 자연으로 풀어낸 구성과 함께 독도를 강조하며 작가의 뚜렷한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밖에도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폭포를 표



‘아! 대한민국(사계)’

현한 ‘물처럼’, 민족의 아픔과 평화를 염원한 ‘우리 아리랑 아침의 나라’, 색채와 상징이 어우러진 한지작품 ‘아리랑 아리랑’ 등도 함께 전시된다.

김 작가는 “영산강의 물줄기처럼 흘러온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든 아리랑을 통해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며 “이번 전시가 관람객 각자의 ‘아리랑’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내 안의 ‘나’를 꽃피우다

조유나 초대전, 8월28일까지 전남대 본부 로비

자아를 향한 탐색이 조형언어로 펼쳐진다.

전남대학교박물관은 오는 8월28일까지 대학본부 1층 로비에서 조유나 초대전 ‘Rose: 내 안의 나를 피우다’를 개최한다.

작가는 인체를 단순화한 조형 언어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소상 작업을 이어왔다.

‘내 안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과 자아의 본질을 조각으로 표현한다. 유기적인 곡선에 작가의 경험과 감정, 상상



‘Flow’

이 더해진 독특한 조형미가 돋보인다.

전시에서는 ‘자소상에서 확장된 현대인’을 주제로 홍상, 토르소, 전신상, 대형 조각 등 8점을 선보인다.

대표작 ‘Rose’는 인물을 붉은 장미꽃에 빚대어 형상화한 작품으로, 현대인의 내면에 깃든 열정과 사랑, 그 이면의 아픔까지 함께 담았다.

김철우 관장은 “많은 꽃이 피어나는 여름, 다양한 감정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엄마마음으로 돌보아 드립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대 상: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서비스 유형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200%이하) 마형(20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 ~ 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우리 아이 양육 파트너 ‘아이돌보미 모집’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회원가입 → 모집공고확인 → 지원신청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

대표번호: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자동 연결)

홈페이지: idolbom.go.kr

“여행의 모든 순간, 캐논으로 완성하다”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캐논라이브

[호주 퀸즐랜드 여행 편]

2025 여름 캐논 정품등록 프로모션

이벤트 대상 제품을 구매하시고 정품등록 후 이벤트 응모 및 승인 완료된 모든 고객님의게 100% 사은품 증정!

제품 구매기간

2025년 6월 23일(월) ~ 8월 31일(일)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기간

2025년 6월 23일(월) ~ 9월 8일(월)

캐논스토어

캐논코리아총판

062)522-2000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2로 54 (금호월1층 139호)

CMYK